

[TV]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극장체인 '메가박스' 호주 기업에 팔려

미디어플렉스 자본 전량 1,455억에 넘겨... 국내영화산업 구조조정 예고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메가박스가 호주계 금융회사 매쿼리에 매각됐다. 메가박스의 자본 53.92%를 보유해온 오 리온 그룹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미디어 플렉스(대표 김우택)는 보유주식 293만754주 를 매쿼리 펀드가 한국 법인으로 만든 KMIC(Korea Multiplex Investment Cooperation)에 18일 1천455억 원을 받고 전량 매각했다.

원을 받기로 했다. 메가박스는 지난해 1천91억 원의 매출과 87억4천84만 원의 순이익을 거둔 알짜 계열 사. 그럼에도 2000년 코엑스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55개관을 영하며 업계 3위를 고 수하고 있는 메가박스를 호주 자본에 판 것 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플렉스 측의 설명은 간 단하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즉 콘 텐츠에 집중하겠다는 뜻. 미디어플렉스 관 계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갖기 위해 하드웨어 부문을 포기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박스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더 많은 관로 개척과 수익을 거두 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화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오리온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포 기성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KMIC가 무슨 목적으로 메가박스 지분을 사들였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한국 영화계를 이끄는 큰 축인 미디어플렉스의 향후 행보 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무로 관계자 들은 메가박스가 향후 미국 배급사인 KT 등 통신 자본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드라마 옴부즈맨 도입해 안방불륜 막자"

방송비평회 주최 포럼서 강승구 교수 제안

TV 드라마의 윤리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시청자들은 사건 제작자와 '드라마 옴부즈 맨' 같은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방송위원회의 징계 수위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승구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

방송비평회 주최로 열린 '한국 TV 방송의 윤리성에 대한 비평' 주제의 포럼에서 '텔레 비전 드라마의 윤리적 쟁점과 비평'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 강 교수는 최근 종영된 '내 남자의 여자'를 예로 들면서 "불륜을 한번이라도 동경한 시 청자들에게 잘못된 동기 부여를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실제 불륜을 경험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던 드라마의 폐해는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 주부들의 불륜에 대한 잦은 묘사는 시청자들로 하여 금 불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 을 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그 대안으로 완전한 사건 제작 제를 도입해 프로듀서들이 시청률 유혹에 빠져 자극적이고 일탈적인 상황 묘사를 하 지 못하게 해야 하며 자체 심의기구인 '드라 마 옴부즈맨'을 구성해 자율적 규제에 나서 야 한다고 주장했다.

Living TV and TBN advertisement for 'Sexi Mole Camera Honey Trap' (섹시 몰래 카메라 하니 트랩) featuring a woman in a red dress.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with a picture of a hearing aid and text about 25 years of experience.

케이블·위성TV 20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for the day.